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 평가 결과서			
연구과제명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성 연구	연구자(기관)	정주영
과제담당관	기획제작팀장 도재형	과제담당자	주임/김시내
연구수행방식	1. 위탁형 용역(0)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계약 방식	1. 입찰/수의계약() 2. 공모/협약(0)	계약 금액	18,093,139원
연구 기간	2020.02.28.~05.29. (3개월)	공개 여부	공개(0)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개예정일:)		
연구결과 및 연구목표 달성도	<p>-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아카이브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방향성 및 절차를 잘 제시한 것으로 보임. 특히 단순한 자료의 집적이 아니라, 자료의 문맥과 의미를 설계한 아카이브 방식은 향후 연극사·극장사의 맥락에서 관련 연구 등에 활용가능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임.</p> <p>- 구축 대상 데이터량 및 분류 모델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아카이빙의 방향성 및 구축 모델에 대한 상을 잘 제시한 것으로 보임.</p>		
표절 및 유사성 확인여부	<p>□ 검토여부 : (0)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작성을 통해 재확인</p> <p>□ 검증결과 : 표절 및 유사성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채널(https://channel.copykiller.com)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6%로, 문제없음을 확인함.</p>		
평가결과	<p>□ 연구용역 목적의 부합성 정적인 분류체계에 따른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각종 맥락, 가령 남산예술센터가 걸어온 여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한 아카이빙 방식을 통해 연극사적인 관점에서 아카이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용역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p> <p>□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이와 같은 연구는 아카이빙뿐만 아니라, 남산예술센터 및 공연예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바, 두 분야에 관련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은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적절한 것으로 보임.</p> <p>□ 계약 내용의 충실성 연구 용역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것으로 보임.</p> <p>□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 남산예술센터는 한국의 공연예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극장 중 하나임. 특히 2009년 재개관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해당 시기 한국연극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도 함.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보고가 될 것으로 보임. -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작품들에 대한 아카이빙은 연구자들을 위한 목적을</p>		

넘어 미래의 창작자들에게도 과거의 작품들을 학습하고 새로운 창작의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주요 국공립극장에서 예술검열이 극심하였던 2015년 ~ 2016년 시기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해당 시기 한국연극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연구 결과물로 구축될 디지털 아카이빙은 남산예술센터가 그동안 구축해 온 공공성을 작품, 인물 등의 차원에서 가시화 시켜 보여줄 것으로 보임.
-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공연예술 아카이빙이 사실상 부재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아카이빙 사례는 향후 다른 국공립극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기타사항(표절 및 유사성 검증)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항은 보이지 않음.

평가자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이양구 (서명)	도재형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연구과제명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성 연구			
과제담당성명		김시내	점검일자	2020.11.26.	
소속 및 직위		기획제작팀/주임	참여구분	책임	공동
분류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있음	없음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2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3	타인 저작물에 대한 인용 및 활용 출처 미 표기		✓	
	4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 표기		✓	
	5	2차 문헌 표절		✓	
	6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는 밝혔으나 3문장 이내로 직접 인용 하였으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7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8	인용한 것에 대한 불분명한 출처표시 ·본문에는 출처표시를 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한 경우 ·직접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확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	
	9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으나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	
10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본 보고서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는 경우		✓		
중복 게재	11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		✓	
	12	출처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	
	13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	